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68호 / 12월 23일

國家信息中心, 내년도 경제성장률 8% 전망

1. 개요

□ 中國 國家信息中心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8%로 전망함.

- 산업별 예상 성장률은 1차 산업 3%, 2차 산업 9.6%, 3차 산업 7.4%임.
- o 공업생산증가율은 9.7%,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16%로 예상됨.
- o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.5%, 15.0% 늘어날 전망이다.

□ 중국정부는 내년에도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상대적으로 금년에 비해 금융정책의 비중을 강화할 방침임.

- 실업문제는 내년에도 경제성장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될 전망이다.

2. 내년도 주요 경제지표

□ 내년도 공업생산액은 9.7% 증가한 3조 3,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.

- 전자통신산업의 성장은 다소 완화될 것이며, 전통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고정자산투자는 16% 늘어난 5조 900억 元으로 예상됨. 또한 외국인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임.

- 금년 고정자산투자 중 신규투자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에도 유리한 역할을 할 것임.

○ 금년 1~9월 고정자산투자 중 신규항목은 약 7만 개였으며, 신규항목이 시공항목의 61%를 차지하였음.

- 내년도 외국인투자 실행액은 20%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.

□ 도시소비는 금년에 비해서 1.5% 포인트 늘어날 10.3%로 예상되지만, 농촌소비는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.
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.5% 내외로 예상됨.

□ 수출은 15.5%, 수입은 15% 정도 증가할 것이며, 이에 따라 무역흑자는 금년에 비해 약간 늘어날 전망이다.

- 중국제품에 대한 수출쿼터 증가, 비관세장벽 철폐 등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. 또한 가전제품이나 첨단기술 제품은 비관세장벽이 높지 않아 이들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임.

- 수입은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의 영향을 받고 있음. 외자기업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수입하는 설비, 물품 및 원자재의 수입이 빠르게 늘어남.

3. 내년도 경제정책 전망

□ 중국정부는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촉진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

지만, 금년의 경우 그리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못 받고 있음.

- 서비스업은 금년 3/4분기 현재 6.6% 성장에 그쳐,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함.
- o 실업자 수는 작년 680만 명에서 금년 9월말 752만 명으로 늘어났으며, 같은 기간 실업률은 3.6%에서 3.9%로 증가함.
- o 내년도 실업률은 4.5% 정도로 예상됨.

□ 내년에도 1,500억 元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확대재정정책의 기초를 이어갈 것임.

- 이들 국채는 ▲남북수로 등과 같은 장기적인 건설사업, ▲취업증가, 소비증대에 유리한 사업, 가령 농촌의 기초시설, 공공위생, 의무교육 등에 대한 투자 증가, 서부의 삼림 복원 등, ▲사회보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, ▲전자행정 및 기업정보화 사업 등에 사용될 것임.

□ 확대재정정책과 함께 금융정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, 내년도 M2 증가율은 17%, M1 증가율은 16%로 예상됨.

- 금융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첫째, 인민은행이 초과지준률을 낮추고, 농촌에 대한 재대출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변동폭을 확대해야 함.
- o 둘째, 국유은행의 주식제 개혁, 지방의 중소금융기구 양성 및 농촌신용사의 건전화가 필요함.
- o 셋째, 소비대출의 확대와 개인신용제도를 정착이 필요함.
- o 넷째, 엄격한 관리·감독하에서 대형 기업의 회사채발행이 늘어나야 함. (***)